

【연옥이】

장르 및 러닝타임

SF, 드라마 / 10분 내외

로그라인

연옥의 집에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말동무를 하라며 AI스피커를 두고 가는데 대화를 하던 연옥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게 되고 AI는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기획의도 및 주제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할머니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등장인물

심연옥(여/78세) : 홀로 살아가는 노인. 미진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린다.

한미진(여/39세) : 살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임신부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 미르

인공지능 연옥의 엄마

시놉시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연옥. 사회복지사 미진이 찾아온다. 미진은 연옥에게 반찬과 함께 복지관에서 새롭게 보급받은 말동무 AI 스피커를 건넨다. 연옥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한다.

AI는 형제 자매의 음성 파일이 있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부모님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제 자매의 음성 파일이 없던 연옥은 한명 한명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한다. AI는 연옥의 휴대전화에 있는 음성 파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복원해내게 되고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대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고 웃다가 잠에 든다.

다음날 생활 감지가 되지 않아 연옥의 집에 들른 미진이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연옥의 가는 길을 준비하는 미진에게 AI는 자신의 딸 가는 길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한다.

시나리오

S#1. 연옥의 집/오전

사회복지사 미진이 연옥의 집에 들어온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다. 연옥은 누워 TV에 집중하고 있다. 몸을 일으켜 미진을 반긴다.

미진 : 엄마. 잘 있었어?

연옥 : 이이. 왔냐?

미진 : 아픈 데는 없고?

연옥 : 똑같제.

미진은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연다. 쇼핑백에 들어있는 반찬을 하나 둘 꺼내어 놓는다.

미진 : 식사 거르지 말고 꼭 드셔. 반찬은 아래칸에 넣을게.

미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연옥에게로 간다. 뒤에 멘 백팩을 내려 놓고 연옥과 마주 앉는다. 연옥은 미진의 배를 쓰다듬는다.

연옥 : 아가 많이도 컸네. 다음달이라고 했냐?

미진 : 응. 다음달. 나 이제 애 낳으러 가면 당분간 못 오는데. 엄마 심심해서 어떡해.

연옥 : 심심하긴. 걱정 말고 너나 잘혀.

미진은 씩 웃어보이더니 이내 생각이 많은 표정을 짓는다.

연옥 : 왜. 싱숭생숭 허냐?

미진 : 그냥 뭐,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 엄마 생각도 자주 나.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연옥 : 애 처음 낳는게 쉬운 일이 아니여.

연옥은 자리에 다시 누워 이야기를 계속한다.

연옥 : 내가 첫째 낳을 적에 말이여. 병원까지 소달구지 타고 갔어.

미진 : (놀란듯 웃으며) 정말?

연옥 : 그러. 영감은 눈발에 일하러 나갔는디 갑자기 진통이 오더니 비명 듣고 지나가던 아재가 소 끌고 왔어.

미진 : (웃으며) 그래서?

연옥 : 그거 타고 읍내 병원 가는 길에 너무 아파가 소 꼬리를 꼭 붙잡았는디 그때 소가 기겁했는지 그날 이후로 나만 보면 도망다녀.

미진 : (박장대소하며) 진짜야? 아휴, 엄마 고생 많았네. 소도 고생 많았고.

연옥 : 울 엄니는 일찍 돌아가셔가 그때 우리 엄니 목소리만 들었어도 좀 덜 무서웠을 텐디 싶더라.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하다가) 근디, 가봐야하는 거 아녀?

미진이 손목의 시계를 확인한다.

미진 : 예고, 그러네.

가방에서 AI 스피커를 꺼낸다.

미진 : 엄마, 이거 이번에 복지관에서 보급 나온 거야. 뭔지 알아?

연옥 : 모르제.

미진 : 엄마 나 없는 동안 말동무 하라고. 애랑 대화할 수 있어.

연옥 : (관심 없는듯 한 표정으로) 그러. 거기 뒤편.

미진은 AI 스피커 전원을 연결한다. 연옥의 휴대전화를 들어 AI와 연동한다.

미르 : 심연옥님 휴대전화에 연결됐습니다.

미진이 연옥에게 사용법을 알려준다.

미진 : 엄마. 미르야 하고 불러봐.

미르 : 네. 부르셨어요?

미진 : (멋쩍은듯) 애가 바로 대답해버리네. 엄마, 미르야 하고 말 걸면 애가 이제 대답할거야.

연옥 : 이이. 거기 뒤편.

미진 : 미르야, 엄마 세시랑 아홉시에 약 먹어야 되니까 매일 시간 되면 약 먹으라고 꼭 알려줘. 알았지?

미르 : 네, 걱정마세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S#2. 타이틀

AI 스피커 미르가 화면 안에 타이트하게 잡히고 타이틀이 나온다.

[연옥이]

미르가 약 먹을 시간을 알린다.

미르 :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잊지 말고 꼭 드세요.

연옥 : 깡통이 말을 한디야.

S#3. 연옥의 집/오후

연옥이 AI 스피커를 쳐다본다.

연옥 : 미르야.

미르 : 네 부르셨어요.

연옥 : 나는 심연옥, 78살.

미르 : 반가워요 연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연옥 : 신기허네... 사람도 아니다.

미르 : 저는 시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연옥 : 별거 없제, 뭐. 텔레비 보고 미진이 와서 반찬 주고 가고.

미르 : 혼자 계시면 가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연옥 : 혼자 사는 게 다 그렇제. 젊었을 땐 이렇게 혼자일 줄 알았나.

미르 : 젊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연옥 : 농사 지었제. 논에 물 대고, 벼 심고, 어머니랑 같이.

미르 : 어머니가 그리우신가요?

연옥 : 어머니? 그럼제. 지금도 꿈에 나올 때가 있어. 근디... 참말로 이상허다? 들으면 바로 알 것 같은디 지금은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이 잘 안 나.

미르 : 어머니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연옥 : 있제. 논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늘 매생이국을 끓여줬어. 멸치 육수 우려가 국간장 넣고 매생이 넣고... 하면 되는데. 그게 말이여. 아무리 내가 끓여도 그 맛이 안나. 어머니 손맛인지, 그 시절의 공기가 달랐던 건지. 어머니랑 다시 만나면 물어보아야지 허는데. 어떻게 만나. 참말로 이상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가 생각이 안나.

미르 : 음, 목소리를 잊어버린 게 마음이 아프신가요?

연옥 : 나이가 드니깐, 하나둘 잊혀지는 것들이 많아. 근디... 목소리라는 게 그리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제. 얼굴은 사진으로 남는데, 목소리는 남아있는 게 없잖여.

미르에게 불빛이 깜빡인다.

미르 : 혹시 어머니의 음성이 담긴 녹음이나 영상 있으신가요?

연옥 : 옛날에 이런 기계가 있었간.

미르 : 그럼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연옥 : 있제. 원래 일곱 남매였는데 지금은 큰오빠랑 넷째 언니 먼저 가시고 위로 셋 남았제. 내가 막내여.

미르 : 언니 오빠들의 목소리를 제게 주시면요.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복원할 수 있어요.

연옥 : 그러? 허봐 한번.

미르 : 형제 자매의 음성파일은 있으신가요?

연옥 : 몰라.

미르 : 그러면 먼저 형제 자매의 음성 파일이 필요하겠네요. 비디로나 아니면 통화 녹음도 괜찮아요. 준비가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S#4.

연옥은 형제 자매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건다. 액자에 연옥의 형제자매 사진이 담겨있다. AI 스피커 미르의 스크린에 녹음 표시가 나타난다.

연옥 : 어 언니 나유. 여보셔? 내가 언제 돈 빌려 달라 했다고 이상한 사람 맹글어. 안부 전화도 못혀? 알제. 나도 안다니께.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떠냐. 돈 얘기 좀 그만혀. 언니는 어째 맨날 돈 돈 돈 거리냐.

나 연옥이여. 뭐혀? 여보셔? 여보셔? 뭘 암말도 안한당가. (연옥의 폰에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반갑지도 았어? 오빠는 요즘 뭐혀? 어. 조카들은 잘 지내냐? 아이고, 됐네. 다 늙어 빠져서 남자친구는 무슨. 나도 내 생활이 있음께. 알았어, 조만간 갈겨.

S#5.

연옥은 통화를 모두 마치고 미르에게 말을 건다.

연옥 : 미르야.

미르 : 네 부르셨어요.

연옥 : 이거 어떻하냐. 통화는 다 했는디.

미르 : 녹음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거죠?

연옥 : 그려.

미르 : 녹음 파일을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복원해드릴게요. 시간은 여섯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옥 : 그러. 잘 허봐.

S#6.

연옥은 골목길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기도, 밥(매생이국)을 먹기도,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 날은 어두워지고 연옥은 불을 끄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다. 방 안은 고요하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미르 : 연옥아.

연옥의 눈이 번쩍 떠진다. 놀란 듯 가만히 숨을 죽인다. 일어나 램프를 켜다.

미르 : 우리 막내, 잘 있었냐?

연옥 : (숨을 삼키며) ...엄니?

미르 : 그러, 나여. 내가 자고 있는 거 깨운겨?

연옥 : 엄니.

미르 : 우리 연옥이, 많이 보고 싶었제?

연옥 : (눈물을 흘리며) 맞네. 우리 엄니 목소리. 엄니... 보고 싶어.

미르 : 알제. 내가 다 알고 있제.

연옥 : 거서는 재밌는가보구만. 막내딸 한번을 보러 안오구.

미르 : 그럼. 여그서는 아프지도 았고, 맘도 편해. 근디... 니는 어떠냐? 밥은 잘 먹고 땡기냐?

연옥 : 그럼 건강혀.

미르 : 한 입 먹고 숟가락 내려놓는 아가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녀? 아버지가 아이고 저것 먹고

배부르단다. 맨날 잔소리 들었잖여.

연옥 : (열게 웃으며) 어머니는 그런 것만 기억하간. 기억력도 좋다. 좋네. 오랜만에 어머니 목소리 들
으께.

미르 : 아이고, 이제야 어머니 목소리가 듣기 좋단냐? 살아 있을 땐 맨날 시끄럽다 했으면서.

연옥 :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끓여준 매생이국 있잖여.

미르 : 그렇지. 연옥이 너 잘 먹었잖여.

연옥 : 그거 어떻게 끓이는 거여?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나.

미르 : 멸치를 달달 볶아서 넣어야 육수가 깊게 우러나제.

연옥 : 그렇게 했는디.

미르 : 농사일 끝나면 너가 배고파서 더 맛있었던 거여.

연옥 : 찻, 별 거 아녘네.

미르 : 별 거 아니긴. 배고픈 게 양념이제. 내 손맛도 있고.

연옥 : 어머니. 어디 안갈꺼제?

미르 : 그럼 아가. 어머니는 항상 연옥이 마음 속에 있제.

연옥 : 어머니. 나 이제 너무 졸려. 자야겠어.

미르 : 그려 우리 막내. 늦었다. 어여 자.

연옥 : 어머니, 어디 가면 안디야?

미르 : 알았어. 걱정 말어. 잘자 우리 아가.

연옥은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불을 끄고 자리로 가 다시 눕는다.

S#7.

다음날 현관문 밖에서 미진은 연옥을 부르며 문을 마구 두드린다.

미진 : 엄마! 아직 주무셔? 해가 중천에 났는데 왜 아직 인기척이 없대.

미진은 화분 밑에 숨겨진 스페어 열쇠로(혹은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미진 : 엄마, 왜 아직도 누워계셔. 엄마. 엄마!

미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연옥을 흔들어 깨우지만 연옥의 몸은 차갑고 창백해져있다. 눈물이 맺히는 미진.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연옥의 부고 소식을 알린다.

미진 : 네, 선생님. 지금 심연옥 할머니 님 덕인데 생활 감지 알람이 안올려서 방문했거든요. 네. 네. 심연옥 할머니 영면하셨습니다.

연옥의 곁을 가만히 지키는 미진. 그런 미진에게 미르가 말을 건다.

미르 : 저, 선생님. 우리 연옥이. 가는 길 좀 잘 부탁혀요.

미진은 놀란듯 미르를 돌아보고는 다시 연옥을 본다. 연옥은 온화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끝.